

2020.5.15-10.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 3, 4관

15 MAY-25 OCT 2020  
ACC CREATION  
SPACE 3, 4

연대의

SOLIDARITY

흔씨

SPORES

# 연대의 흙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 속의 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며 예술 실천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안해 왔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한중일을 비롯하여 아세안의 국제 사회 역할론이 대두되며, 아시아는 이제 21세기의 공동체를 상상하고 새로운 연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비동맹 운동(NAM, Non-Aligned Movement)', '공동체', '연대'를 화두로 예술 실천의 역동적 궤적을 조망하는 국제 기획전 연대의 흙씨를 제안한다. 본 전시는 비동맹 운동의 역사와 그에 조응했던 문화 예술적 실천을 재조명하며, 연대 정신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나타나는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질문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 시공간을 가시화하면서 예술 실천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균형, 공동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전시 연대의 흙씨는 그 어떤 특정한 역사적, 정치적 실천을 대변하지 않는다. 비동맹 운동과 예술 실천의 관계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이 아닌 새로운 자생적 문화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우리의 관심은 본 전시를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문화적 연대를 구축하고 예술적 실천으로 번안되며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켰는지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번 전시 제목인 '연대의 흙씨'는 저항과 연대의 은유로서 '흙씨'의 개념을 발전시킨,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연대 미술관(MSSA)의 봉쇄는 없다. 연대 미술관, 흙씨가 된 미술관 프로젝트 개념과 조우한다. 1970년대 초 칠레 시민들을 위하여 전 세계 미술인들이 작품을 기부함으로써 탄생했던 연대 미술관은 그 자체로 문화 실천과 연대 정신을 구현하며, 미술관의 이러한 정체성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대 정신을 전파하고 재활성화할 수 있는 '흙씨'로서 작동한다. 연대의 흙씨 전시는 연대의 유연하고 지속적이며 은유적인 개념을 오늘날 예술 실천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 SOLIDARITY SPORES

The Asia Culture Center (ACC) has been presenting a new vision for the future by examining Asia's histories and cultures through artistic practices within the global context. With growing interest in ASEAN countries and their expanding role in the global arena alongside Korea, China and Japan, new definitions of community and new hopes of solidarity are possible for Asia in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the Asia Culture Center presents a special international exhibition Solidarity Spores, which explores dynamic traces left by artistic practices by touching on the themes of the "Non-Aligned Movement," "community" and "solidarity." The exhibition sheds new light on the history of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accompanying cultural and artistic practices; in doing so, it asks how the spirit of solidarity can liberate us from division and conflict resulting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Through visual manifestations of historical time and space that younger generations have not experienced before, artistic practices featured in the exhibition instill hopes and possibilities for a new world order, equality and communal history.

Solidarity Spores does not speak on behalf of a particular historical or political st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Aligned Movement and artistic practices has spurred the growth of cultural output without attaching political strings. Through the exhibition, we seek to identify how this relationship led to cultural solidarity, adaptations in artistic practices, and changes in our perceptions. Used as a metaphorical reference to resistance and solidarity, the titular word "spore" is an acknowledgement to the No Containment. MSSA, the museum as spore (No-contención. MSSA, el museo como espora), a project featured at the Chilean Museum of Solidarity Salvador Allende (MSSA, Museo de la Solidaridad Salvador Allende). The MSSA opened its doors for the citizens of Chile in the early 1970s with donations of works from artists around the world. Since then, it has embodied the spirit of solidarity as a "spore" that revitalizes and spreads the movement through cultural

연대의 흙씨는 보야나 피슈쿠르, 발리 마흐루지/마지막 10년의 고고학, 김성희, 슬기와 민/고토 데쓰야, 서동진, 김성원 등 총 6명의 큐레이터/팀의 제안들로 구성된다. 비동맹 운동을 문화 예술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보야나 피슈쿠르의 남반구의 성좌: 비동맹의 시학, 광주 스테이션은 동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대에 초점을 맞춘다. 발리 마흐루지의 아카이브로 구성된 유토피아 스테이지: 시라즈-페르세폴리스 예술 축제는 1960-1970년대에 가장 실험적이고 특이했던 예술 축제를 재구성함으로써 전통과 아방가르드의 절묘한 만남을 재조명한다. 나임 모하이멘의 두 번의 회의와 한 번의 장례식과 서현석의 낯은 미래에서는 제3세계의 프로젝트들을 재방문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드러난 긴장, 불화, 균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이 이끄는 '킥 더 머신 다큐멘터리 컬렉티브'의 사운드 설치, 호 루이 안의 퍼포먼스, 에카 쿠르니아완과 백현진의 협업으로 구성된 다원 예술 프로젝트에서는 아시아의 전통, 정치, 사회 문화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세계화 이후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망을 제안한다. 그래픽 디자이너 13인/팀으로 구성된 공통 관심사: 젊은 동아시아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대화와 국내 차세대 작가 12인/팀이 상상하는 일상을 위한 유연하고 느슨한 연대의 모임 일상의 연대: 차세대 작가들의 잔잔한 제안들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흙씨'로서의 연대를 실천한다. 본 전시를 계기로 비동맹 운동의 이해를 돕는 비동맹 독본이 아시아 최초로 출간되며, 전시 기간 중 열리는 연대의 학교에서는 이 독본을 중심으로 비동맹 운동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슈 또한 다룬다.

예술감독 김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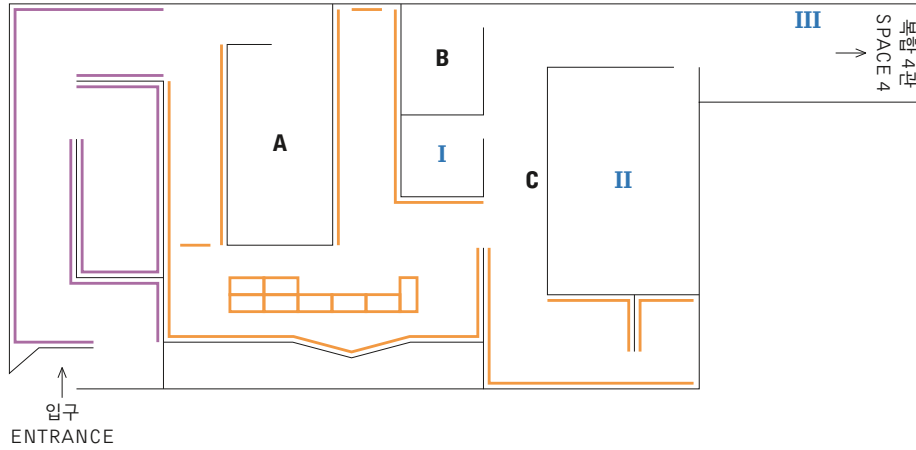
expression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The exhibition Solidarity Spores seeks to expand the concept of solidarity to include flexible and sustainable artistic practices of today.

Solidarity Spores is spearheaded by six curators or teams including Bojana Piškur;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Seonghee Kim; Sulki and Min/Tetsuya Goto; Dongjin Seo; and Sungwon Kim. Addressing the Non-Aligned Movement from a cultural and artistic viewpoint, Bojana Piškur's Southern Constellations: The Poetics of the Non-Aligned, Gwangju Station focuses on the cultural solidarity between the Eastern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s archival work A Utopian Stage: Festival of Arts, Shiraz-Persepolis recreates the most experimental and unique art festival of the 1960s and 1970s that juxtaposes the traditional and the avant-garde. Naeem Mohaiemen's Two Meetings and a Funeral and Hyun-Suk Seo's The Age of Future probe the idea of the Third World project, searching for tensions, discords and divisions that stem from neoliberal globalization. The Interdisciplinary Arts Project brings together Asia's traditions, politics, and cultures of today with implications for the post-globalization era through these works: the sound installations of Kick the Machine Documentary Collective, led by Apichatpong Weerasethakul; Ho Rui An's performance; 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Eka Kurniawan and Bek Hyunjin. Common Interests: Conversation of Young East Asian Graphic Designers features thirteen individuals or teams of graphic designers while Solidarity in Everyday Life: Simple Suggestions from the Next Generation of Artists presents twelve of the next generation Korean artists. The "spores" of their imagination show the flexible and easygoing kind of solidarity applicable for everyday life in the "here and now" as well as for the future. This exhibition made possible the Non-Aligned Reader, the first publication of its kind in Asia that provides insight into the movement. An in-depth look at the publication will be made through a public lecture series, Solidarity School,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Non-Aligned Movement and its current and future implications for Asia.

Directed by Sungwon Kim

# 복합 3관

# SPACE 3



남반구의 성좌  
Southern Constellations

유토피아 스테이지  
A Utopian Stage

다원 예술 프로젝트  
Interdisciplinary Arts Project

**I**  
호 루이 안  
Ho Rui An

**II**  
킵 더 머신 다큐멘터리 컬렉티브  
Kick the Machine Documentary Collective

**III**  
에카 쿠르니아완·백현진  
Eka Kurniawan and Bek Hyunjin

**A**  
나임 모하이멘  
Naeem Mohaie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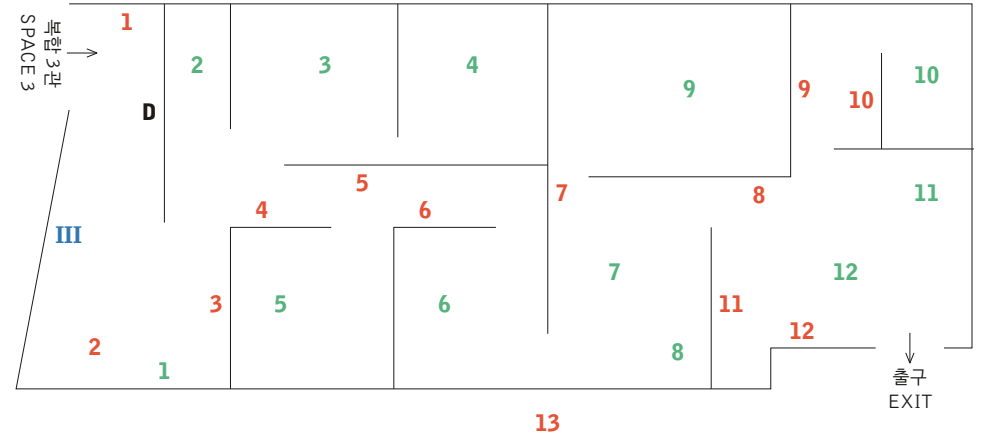
**B**  
서현석  
Hyun-Suk Seo

**C**  
발리 마흐루지/마지막 10년의 고고학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D**  
살바도르 아엔데 연대 미술관  
MSSA

# 복합 4관

# SPACE 4



공통 관심사  
Common Interests

**1**  
응우옌 장  
Giang Nguyen

**2**  
나가시마 리카코  
Rikako Nagashima

**3**  
유관설계부문  
Related Department

**4**  
다카다 유이  
Yui Takada

**5**  
자누아르 리안토  
Januar Rianto

**6**  
배민기  
Bae Minkee

**7**  
시드니 시에·전원존  
Sydney Sie and  
Zen Yun Zon

**8**  
하시즈메 소  
So Hashizume

**9**  
기디언-제이미  
Gideon-Jamie

**10**  
후루프  
Huruf

**11**  
홍은주  
Hong Eunjoo

**12**  
사키 호  
Saki Ho

**13**  
신인아  
Shin In-ah

일상의 연대  
Solidarity in Everyday Life

**1**  
최윤·김벌리 리  
Yun Choi and  
Kimberly Lee

**2**  
이세현  
Sehyun Lee

**3**  
이동근  
Donggeun Lee

**4**  
차재민  
Jeamin Cha

**5**  
송민정  
Song Min Jung

**6**  
윤지원  
Yoon Jeewon

**7**  
최하늘  
Haneyl Choi

**8**  
이강승  
Kang Seung Lee

**9**  
염지혜  
Ji Hye Yeom

**10**  
파트타임스위트  
Part-time Suite

**11**  
김희천·호상근  
Kim Heecheon and  
Sangun Ho

**12**  
황문정  
Moonjung Hwang

# 연대의 학교

연대의 학교는 비동맹 운동과 제3세계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국제주의적 연대의 정신을 되찾으며 유토피아적인 역사의 순간들을 방문한다. 제3세계는, 심지어 그들이 말하고 사고하는 것조차 의심받았던 서로 다른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세계를 가리키기 위해 상상했던 역사적 이미지였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며 세상의 모든 사람을 존엄한 권리의 주인인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제창하였던 이들은 제3신분이었다. 제3세계는 역사의 제3신분이었다. 그들은 역사에서 다시 평등과 해방을 위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3세계의 이름으로 연대를 구축하였다. 연대의 학교는 지난 세기 세상을 전율하게 하고 가슴 뛰게 했던 유토피아적인 그 순간들을 찾고, 그 계기들마다 불타올랐던 사고, 상상, 이미지들을 소환한다. 연대의 학교는 부끄럼 없이 '과거'라는 역사적 시간을 향한다. 또한 후회 없이 '세계사'라는 비천한 취급을 받아 왔던 개념을 다시 끄집어낸다. 그리고 기억과 트라우마, 전기적 서사에 휩쓸려 표류해 버린 '역사'라는 낱말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낸다. 글로벌 사우스(the Global South)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비참한 자들의 세계가 정의와 평등, 자유를 향한 열정이 들끓었던 세계임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 낸 세계 없는 세계로부터 탈출하도록 우리를 이끌 구원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중단되었던 미래를 되찾음으로써 저지당한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일이다. 연대의 학교는 그 중단된 과거의 흔적들을 발굴하고 그곳에서 번쩍이는 희망의 섬광을 채굴할 것이다.

# SOLIDARITY SCHOOL

Solidarity School examines utopian moments in history and the spirit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hat permeate through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Third World project. The Third World project arose from the need for historical self-representation by those who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but have the same experience of having their words and ideas questioned or dismissed. At the root of this movement is the Third Estate, the commoners who stood at the forefront of the French Revolution to claim their rights as dignified citizens. The Third World is intrinsically the same kind of union as the Third Estate, only taking place at a different time in history by those striving for equality and independence. And they have been cultivating solidarity under the unifying label of the Third World. Solidarity School unearths those utopian moments in the past century that galvanized the people of the world, bringing to the surface the images, ideologies and imaginations that ignited those moments. Solidarity School unabashedly goes back in history to dig up the past and unapologetically reexamines the often disparaged concept of world history. In doing so, it wipes off the layers of dust accumulated from traumatic memories and delusional narratives obscuring what we know as history. Remembering the Global South, not just as the world of the down-trodden but also as a place passionate about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is more than a mere act of commemorating the past. It is an act of redemption that repaves the way out from the non-world creat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so that we can reclaim the future that had been suspended in the past to unleash its possibilities. With this purpose, Solidarity School will unearth traces of the suspended past that will allow rays of hope to shine through.

## 연대의 학교

2020년 9월 11일-11월 21일

총 10회 강좌

동일 강좌가 각각 서울과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추석 연휴 제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추석 연휴 제외

##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공동주관

아시아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 기획

서동진

## Solidarity School

11 September-21 November 2020

10 lecture sessions

Identical lectures will be given in both Seoul and Gwangju.

Seoul Museum of Art, Seoul:  
every Friday during the period, 4 pm  
excluding Chuseok holidays

Asia Culture Center, Gwangju:  
every Saturday during the period, 3 pm  
excluding Chuseok holidays

## Hosted by

Asia Culture Center

## Co-organized by

Asia Culture Institute, Seoul Museum of Art

## Curated by

Dongjin Seo

연대의 홀씨

2020년 5월 15일-10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3, 4관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작

아시아문화원

협력

류블랴나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협찬

컬처플리퍼

예술감독

김성원

기획

보야나 피슈쿠르

발리 마흐루지/마지막 10년의 고고학

김성희

슬기와 민/고토 데쓰야

서동진

김성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www.acc.go.kr

T. 1899-5566

Solidarity Spores

15 May-25 October 2020

ACC Creation, Space 3, 4

Asia Culture Center

Hosted by

Asia Culture Center

Produced by

Asia Culture Institute

In collaboration with

Moderna Galerija and Seoul Museum of Art

Sponsored by

Culture Flipper

Directed by

Sungwon Kim

Curated by

Bojana Piškur

Vali Mahlouji/Archaeology of the Final Decade

Seonghee Kim

Sulki and Min/Tetsuya Goto

Dongjin Seo

Sungwon Kim

Asia Culture Center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Republic of Korea

www.acc.go.kr

T. +82-1899-5566

